

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호수에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과 역사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알아 뵈고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하게 맞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Ferragosto) 미사 안내

- 일시 : 8월 15일(토), 11시
- 장소 : Azienda Agricola La Geretta
(Via Cascina Gera, 3, 22030 Eupilio CO)
- 일정 : 10시 30분 집합, 11시 미사 후 식사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70.60€ • 교무금 360.00€

전례 성가

입당 : 16 (온 세상아 주님을)

봉헌 :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체 : 165 (주의 잔치)

164 (떡과 술의 형상에)

파견 : 69 (지극히 거룩한 성전)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8월 9일

(녹) 연중 제19주일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 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9,9ㄱ.11-13ㄱ)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9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11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13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겹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둥굴 어귀로 나와 섰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9,1-5)

형제 여러분, 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2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5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복음 (마태오 14,22-33)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22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23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24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25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27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스승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일어나는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3.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피 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
고, 그들이 안정을 되찾아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자비로이 보살피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